

프로그램
노트

국수호 · 김재덕의

사계



서울시무용단

한국
창작춤의
산실

예술은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정신세계를 반영하며,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무용단은 1974년 이러한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고민하며 창단됐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치열한
창작 과정을 거치며 활동해온 서울시무용단은
'한국 창작춤'의 중심이 되는 단체로,
전통춤의 재현부터 새로운 창작까지 이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아온 고유한 레퍼토리를 통해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무용단장

윤혜정

자연의 변화로 생겨난 사계절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사계절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삶의 흔적들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무용단이 준비한 이번 작품은
한국인의 흔적을 사계절을 통해
담아보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국무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대무용의
컨템퍼러리를 동시에 담아내는 방법으로
국수호 선생님과 김재덕 안무자의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두 분의 조화는
우리의 사계절이 과거에서 현재로
변화하는 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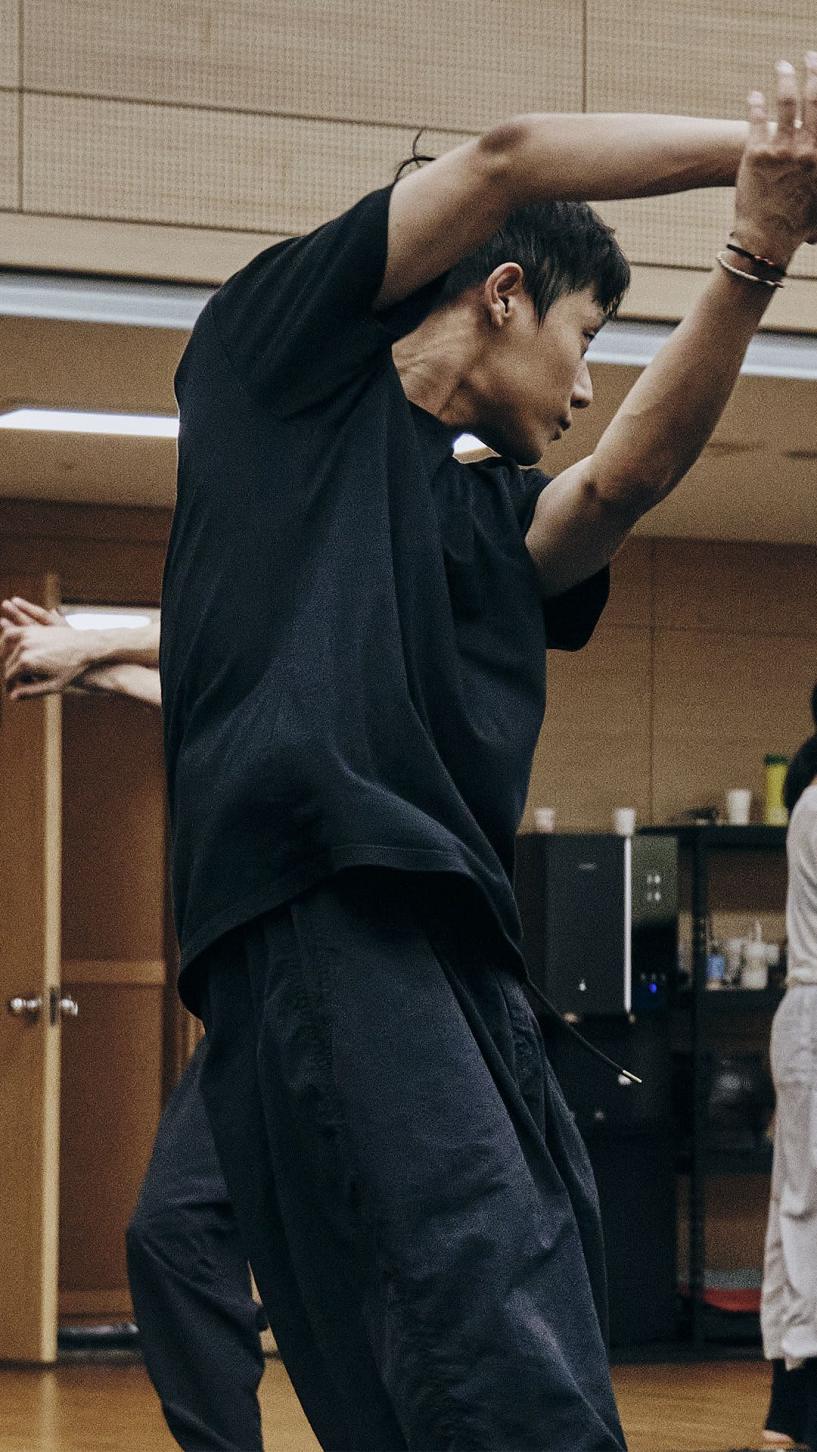
작년부터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수호 선생님과
음악 작업도 하면서 움직임의 공통점을
찾으려 많은 연구를 쏟아 부은
김재덕 안무자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몸을 던져 땀 흘려준 단원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작품을 기획하고 새로운 도전의 초석을
깔아주신 안호상 사장님과
공연제작1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대 뒤의 숨은 조력자인 스태프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될
«국수호, 김재덕의 사계»를 크게 기대하며
이번 작품을 통해 서울시무용단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확인하시고
아낌없는 박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장

봄

세상이 멈춘 듯 미세한 정지와 접촉하는
몸의 비대칭적 상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무형의 지속의 끝
극양(하지)을 향해 달려가는 강렬함과
중력을 거슬러 오르는,
작지만 거대한 탄생의 소리

2장

여름

몸이 차지한 공간

극양(하지)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도약 그리고 경험들

모든 계절을 담은
물소리의 여름을 지나, 가을

3장

가을

대지를 찬양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인간

가을의 정령과 함께 풍성함을 노래하며
삶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남녀

그리고 기러기들의 움직임으로
맞이하는 겨울

4장

겨울

새로운 씨앗을 품은 어머니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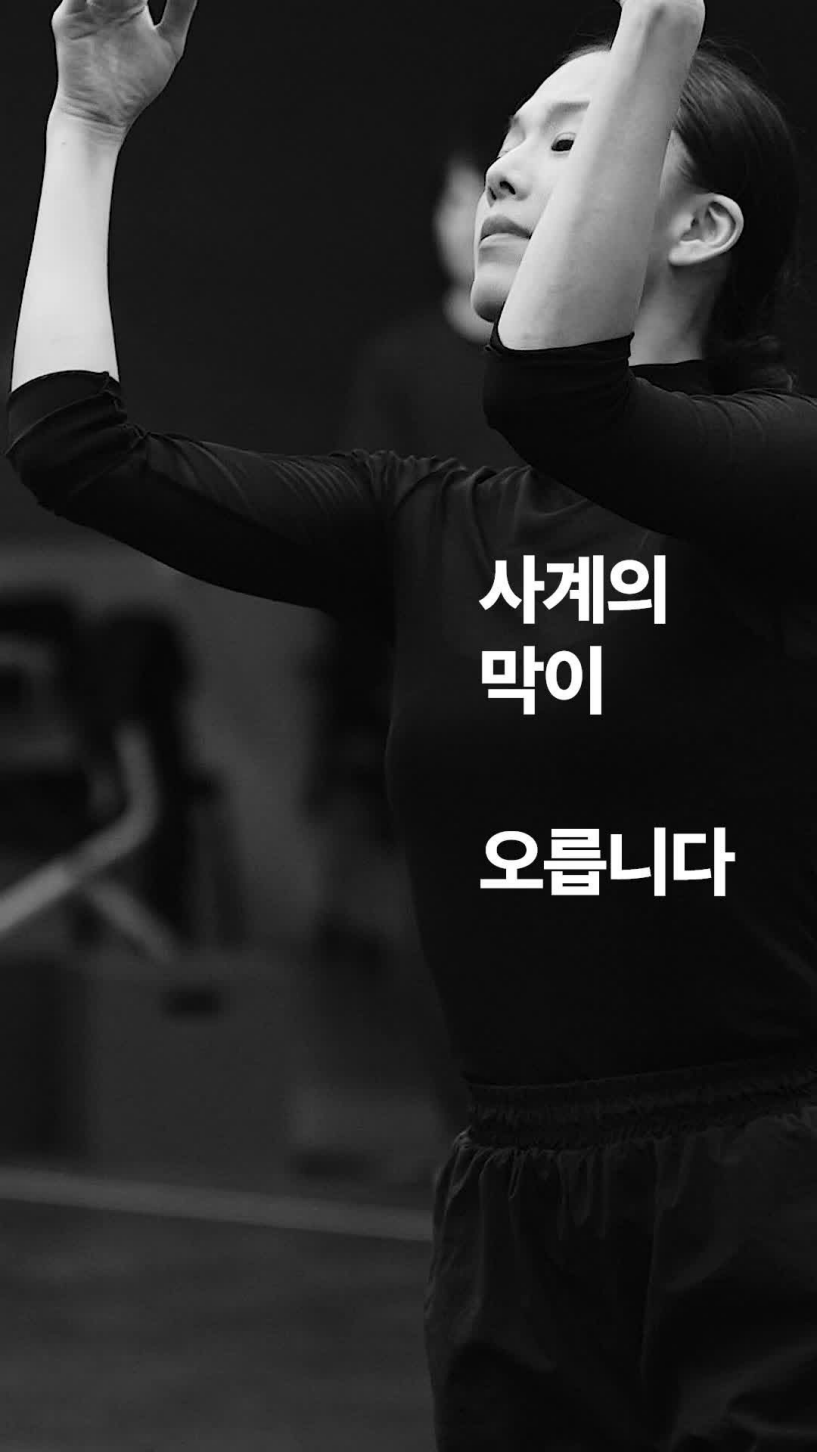
동여매고 품어 씨앗을 감싸고 있는 어둠과
정적 위로 내리는 눈

새로운 해를 기다리며
매서운 겨울의 정령들과 사투를 벌이는 인간
떠오는 해와 함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는 인간

안무



국수호



**사계의
막이**

오릅니다

어렵게 마주한 두 안무가가 서로를
양보하느라 마음 쓰인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동업은 어렵다고 했지요,
춤이니까 다르다고 기획은 생각했겠지요.

천만에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것이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작품을 안무하는 것보다
김재덕을 안무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지요.
그러나 우리 둘은 주고받으며 잘 해냈습니다.
명실상부한 컬래버레이션이지요.

보시는 분들은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제 실력 부족입니다.

처음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봄과 여름을 김재덕 안무가가 안무하고
가을과 겨울을 국수호가 안무하는 방식을.

그리고 봄과 여름에 쓰였던 춤 동작을
가을과 겨울에도 쓰고,
또 가을과 겨울의 동작이 봄과 여름에도
내재하는 자유로운 사계를 그려냈습니다.

제일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계, 즉 인생의 사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좋아하는 한국인의 감성이죠.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더 다듬고 깨우쳐서 좋은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으로 보아주세요.

두 안무가가 한 작품에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사계를 표현해낸 무용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작품에 힘쓰는 모든 제작진과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무

김재덕





**언어의
이해는**

**결국
언어의
초월이다**

이번 작업은 비슷한 세상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사회적 직업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고로 살고 있는 두 안무자의 협업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처음 국수호 선생님과 소통을 시작할 때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언어를 헤아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비슷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국수호 선생님과 나의 사적언어가
서서히 발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에게 사계는 대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몸의 시간성에서 시작하여
몸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추상적 작품이었으나
국수호의 사계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의지와 사랑의 서사였다.

이러한 서로 다름이 한 작품에 담겨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업을 통해 언어는 시간성을 분명하게
지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서로 헤아리려 애쓰지 않으면 이해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

오늘 공연을 찾은 모든 관객들에게도 서로를
이해하려 애쓴 우리의 모습이 보이길 바란다.
그리고 춤을 느끼게 되길 바란다.



의상 디자인

영친

Yeung Chin

楊展

자연이 변화하는 계절에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번갈아가며
불규칙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로 가득 찬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계절을 통해 우리는 일 년 내내
신체 움직임의 변화와 신체 움직임이 변함에
따라 옷이 움직이고 변하는 방식을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의 역동성에 맞게 디자인한 의상에
다양한 디테일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원단 층, 다양한 커팅라인,
다양한 소재의 조합을 통해
역동성의 다양함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사계절의 차이와 대조,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부드러움과 단단함,
투명성과 현실 등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무대 디자인

박동우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니까 사계다.

변하는 계절을 위해

변하지 않는 것을 무대에 올린다.

하늘과 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변하지 않는 것들이다.

하늘이, 산이 바뀌던가?

하늘과 산이 만나는 그 선이 바뀌던가?

우리 할아버지들,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머니들이

보던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늘과 산을 보고 있다.

변하지 않는 하늘과 산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계를 가장 오롯이 담고 있다.
마치 하얀 도화지처럼.

하늘 색, 달빛
구름 모양, 나뭇잎 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또 간다.
사계

DANCER

수석

박수정

최태헌

조경아

박수진

정지현

최주희

홍연지

김하연

이해선

은혜량

제갈숙영

윤서희

김민정

김민지

한지향

부수석

김경애

이진영

오정윤

한수문

강한규

유재성

최옥훈

박정훈

권영성

노연택

김도현 객원



MUSICIAN

첼로	유하나루
대금	이성준
아쟁	신현식
판소리	서진실
거문고	김예림
정가	정승준
피리	이준섭





국수호, 김재덕의 사계 프로덕션

예술감독	윤혜정
안무·연출	국수호
안무·음악	김재덕
무대 디자인	박동우
조명 디자인	신호
의상 디자인	영친 Yeung Chin 楊展
가가 움직임 지도	김천웅
Gaga Movement	
무대감독	장연희
조명 프로그래머	백하림
크루	강상진 김병철 안미란 전규상 정호진 조문경
음향감독	채소영
크루	이은진 유성식
의상감독	변미라 천지연
크루	황창숙 백송희 박규민
분장 디자인	소인경 (소인경아트폼)
크루	김두례 김채영 강현정 명희승
그래픽 디자인	프레인
홍보사진	윤문성 김신중
홍보영상	유정아
지도단원	전진희 최태선
총무	김진원
제작 PD	배영주
홍보·마케팅	조휘영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공연예술본부장

이양희

공연제작1팀

김아림 팀장

구자윤 박향미 김민
최성신 박지환 조휘영
문혜리 배영주

공연장운영팀

김지민 팀장

채준식 강보경 임아라
강민재 전소희 강민선
김지성 구지휴 신재영
최민주 이연서 차주윤
김지연 유혜리

공연DX팀

김여향 팀장

조계성 배유진 한채현
김예지 하수정 유정아
류다혜 박세현 진푸름
서경은

커뮤니케이션팀

김화영 팀장

강봉진 최성용 윤문성
손귀영 이재효 황정연

무대기술팀

김수현 팀장

이종덕 책임안전관리자

무대감독

이민재 유병근
이기훈 장연희 정보배
김동현 김동균 이준 주무형
전새미 송은지

무대기계

안종칠 김상두
서민원 김정 박정길
전혜연 이민우 유지수 서동진

음향

김우람 조영진
이효원 강병권 김경민 채소영
남윤수 김단경 박창순 최은식

조명

노준식 김학철
조현권 김권 설정식
김정태 양용환 변호연 김태진

영상

배준호 한완주
장인표 류병현

의상소품

변미라 천지연
곽내영

무대행정

민제희

Seoul Metropolitan Dance The A+



24.12.13 — 15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